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자비의 사목자들

계속되는 폭격과 전투로 인해 시리아의 많은 지역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잠시 동안 지금이 내 생애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리아 알레포(Aleppo)의 애니 수녀님께서는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에게 쓴 편지를 통해 폭탄이 폭 발하는 도시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며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던 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공격은 애니 수녀님께서 식량과 피신처 그리고 의약품이 절실한 가정에게 구호품을 배분하는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수녀님은 수 주일 동안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된 빈곤 가정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ACN의 여러 파트너 중 한 분이십니다.

본 스페셜 리포트는 시리아의 사제, 수도자 및 평신도 중에서 ACN의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자비의 사목자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ACN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셨는지 알려 드립니다.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분쟁 속에서 여러 프로젝트 파트너들이 겨울철에 긴급히 필요한 식량, 의약품과 피신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ACN 후원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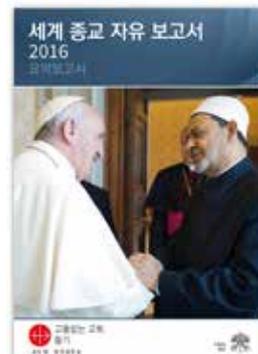
자비의 사목자들은 이런 중요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어떠한 압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ACN은 인간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위협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박해받는 성직자, 신학생 및 수도자들에게 성무 활동비를 제공하고 교회를 보수하는 데 쓰이며,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 실천의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신앙과 자유에 관한 공동의 헌신 속에서 ACN은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알레포 대교구장 장 클레망 장바르(Jean-Clément Jeanbart) 대주교님의 호소를 전합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는 선의를 가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2016」
한국어판 요약보고서
문의전화: 02-796-6440
신청링크: <https://goo.gl/B3yKdr>

사진: 상처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애니 수녀님(중앙)과 시리아 알레포의 한 가정



전쟁 지역에서 구호와 희망을 전하는 애니 수녀님

애니 수녀님은 그의 수호천사를 분주하게 만드십니다.

올해로 50세이신 애니 수녀님(예수마리아수녀회)께서는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알레포와 하사카(Hassake)를 돌아다니시며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기, 의류 및 신발, 난방용 연료 등의 긴급 구호물자를 제공하십니다.

애니 수녀님께서 조직한 청년 자원봉사단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파악한 후 구호물자를 나누어 줍니다.

수녀님께서서는 한때 시리아의 진주라고 불리었던 알레포의 상황을 “우리는 반란군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서 있는 땅에 폭탄이 떨어질지 몰랐죠.”라고 설명하십니다.

한 번은 애니 수녀님께서 가정 방문을 하시는 도중 70대 노부부, 아딧 엘리아스 마투크(Adib Elias Matouk) 씨와 그의 아내, 마셀 바티카(Marsel Batikha, 좌측 하단 사진) 씨를 만나셨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용 연료를 구하고자 침대를 팔고 마룻바닥에 누워 있는 부부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새로운 침대를 구해주고, 전기 발전기 구입용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한 청년 자원봉사자가 가정들을 방문할 때의 일이었어요. 그는 폭탄이 떨어지자 한 건물에 숨었다가 활동을 계속했죠.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저에게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구호물자를 나누어 줄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말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이 계심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과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ACN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집 안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켈레의 신발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매서운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상처입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애니 수녀님과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ACN에게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ACN이 지원하는 애니 수녀님의 알레포·하사카 지역 겨울나기 프로젝트

- 쌀, 설탕, 식용유, 치즈 등의 식량 지원
- 식료품, 생필품 등을 사는 데 필요한 상품권 지급
- 전기 발전기가 필요한 가정에게 보조금 지급
- 어린이를 위한 겨울 의류, 신발, 담요 제공



사진: 알레포의 청년 자원봉사자와 아딧 엘리아스 마투크, 마셀 바티카 부부

알레포의 착한 목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난 분쟁 지역의 중심에 사제가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300개의 교회와 종교시설이 있는 지역의 영적 지도자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멜 키트 그리스 가톨릭교회 장 클레명 장 바르(Jean-Clément Jeanbart) 대주교님께서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마드 신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사제와 부제 그리고 평신도 자원봉사자들 중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장바르 대주교님께서는 알레포의 성모

영면 성당에 떨어진 폭탄으로 이마드 다헤르(Imad Daher) 신부님께서 실명하여 큰 외과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마드 신부처럼 모든 이들이 자신의 본당과 사도직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확신을 두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양떼를 떠나길 거부한 착한 목자, 장바르 대주교님께서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식량 꾸러미와 장학금 지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센터 구축, 주택 보수 등의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또한, 직업센터를 설립하여 60명의 사람들을 목수, 전기공, 배관공 및 카페 매니저로 양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 있으며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어디에서 피신처를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절망적인 상태로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많은 분들께서 기도 중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진1: 장 클레명 장바르 대주교님

끼니를 통해 화합을 만드는 지아드 힐랄(Ziad Hilal) 신부님

ACN 가족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아드 힐랄 신부님(예수회)께서는 약 7,500명의 알레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식당이 커요. ACN과 다른 단체들로부터 지원받은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힐랄 신부님께서는 교회가 많은 무슬림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과 더불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부님께서는 박해와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종교를 초월한 모범적인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서로 종교가 다른 시리아인들 사이에서 최선의 방법은 바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서만 그 어떠한 해결책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력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사진2: 지아드 힐랄 신부님



사진: 아르빌의 난민 아이들을 보살피시는 예수성심수녀회 수녀님



사진: 난민 가정들을 돕는 시리아 청년 자원봉사자, 마즈드 잘흠 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라크에 행하신 자비의 선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6년 6월 부터 자비의 희년이 종료되는 날까지 진행된 ACN 자비 캠페인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자’(Be God’s Mercy)의 첫 번째 기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난민 가정에게 무상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이라크 아르빌(Erbil) 대교구 성 요셉 병원에 기부금을 전해 주시며 “박해 상황을 잊지 말자”고 전 세계 신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주며

슬픔에 지치고 상처입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선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ACN은 2년 전, داع시(IS)에 의해 피난 온 이라크 북부 지역의 그리스도인 난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단체들로부터의 지원이 감소하는 동안 ACN은 오히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ACN의 지원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박해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난민들을 굳건히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ACN의 지원금은 13,500가구의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에게 식량, 주거비, 심리 상담 및 교리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ACN 가족 여러분의 사랑은 진정한 차이를 만듭니다. 지난해 10월, ACN 한국지부를 방문하셨던 칼데아 가톨릭 아르빌 대교구장 바샤르 와르다(Bashar Warda) 대주교님께서 감사를 전하십니다.

“여러분의 연대로 아르빌에 거주하는 많은 가족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단지 시리아인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27세 시리아 청년 마지드 잘흠(Majd Jalhoum)씨는 자원봉사단을 꾸려 서부 도시 홈스(Homs)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박해를 피해 그리스도인 계곡으로 피난 온 난민 가정 1,800가구에게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합니다.

2013년에 의사자격을 취득한 잘흠 씨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녀의 재능으로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잘흠 씨와 홈스 지역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ACN 후원자 여러분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겨울철에 수요가 증가하나 공급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흠 씨를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이끌어 주셨던 예수회 소속 프란츠 판 데어 룩트(Franz van der Lugt) 신부님께서서는 구호 활동을 지속하시다가 2014년 4월, 살해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우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시리아 청년 자원봉사단의 홈스 지역 지원 프로젝트

- 고향에서 쫓겨난 빈곤 가정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
- 외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량 및 보급품 전달
- 무료 진료소가 문을 닫았을 때 긴급 진료 및 의약품 처방
- 겨울철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 가정에게 난방용 연료 제공
- 주택 임대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거비 지원